

# 은행권, 기준금리 내리자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하

농협·카카오·토스 등 최대 0.30%p ↓  
5대 은행 대표상품 연 2.55~2.85%  
3%대 금리 예·적금 찾아볼 수 없어  
저축성 수신금리 7개월 연속 하락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은행권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 달 29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이에 은행권이 발 빠르게 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5종 금리를 최대 0.20%p 내렸다. 이에 따라 퍼스트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연 2.15%에서 2.05%로, 온라인 전용 상품인 e-그린세이브예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0%로 조정됐다. NH농협은행도 전날부터 거치식 예금

금리를 0.25~0.30%p, 적립식 예금 금리를 0.25~0.30%p, 청약예금과 재형저축금리를 0.25%p 각각 인하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도 지난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예금 금리를 일제히 낮췄다.

토스뱅크는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기본금리를 최대 0.30%p 내렸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인 토스뱅크 통장, 토스뱅크 모으기, 이자 받는 저금통, 나눠 모으기 통장, 모임 금고의 기본금리는 연 1.80%에서 1.60%로 0.20%p씩 낮아졌다.

적립식 예금 상품인 토스뱅크 자유적금과 토스뱅크 아이적금의 12개월 만기 기본금리는 연 2.80%에서 2.50%로 0.30%p 내렸다.

케이뱅크도 같은 날부터 플러스박스과 코드K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0%p 인하했다.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 금리는 5000만원 이하 연 1.90%, 5000만원 이상 2.40%로 각각 0.10%p씩 내렸다.

코드K정기예금 6개월 만기 금리는 연 2.70%에서 2.60%로, 12개월 만기 금리는 2.80%에서 2.75%로 조정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1일부터 금리를 낮췄다.

모으기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기록통장과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상품 부가세박스 등 수신상품 3종의 기본금리가 기존 연 1.80%에서 1.60%로 0.20%p 조정됐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公示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일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5~2.85%로 집계됐다.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4일(연 2.58~3.10%)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졌다.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고객에 0.5%p의 우대 금리를 주는 'NH고향사랑기부예금'의 최고금리가 한 달 전까지는 3.10%를 기록하면서 3%대를 유지했으나, 이제는 3%대 금리를 주는 상품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나 시작된 지난해부터 내내 하락하고 있다.

지난 4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1%로 집계됐다. 전월 2.84%에서 0.13%p 낮아졌으며, 지난해 10월(3.37%)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한은이 올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예금 금리 하락세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했기 때문에 향후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고 본다"며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속도와 폭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명 중 네명은 경기를 고려해 향후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예·적금 금리 인하나 예상되면서,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은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940조8675억원으로, 한 달 새 18조3953억원 증가했다.

4월(+225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늘었으며, 지난달 증가 폭은 지난해 2월(+23조6316억원)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정기적금 역시 40조4690억원에서 41조6654억원으로 1조1964억원 늘어나면서,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권범·연합뉴스

## 광주신세계, 'K2그룹전' 여름철 인기상품 할인

8일까지 본관 지하1층 연결통로

광주신세계는 3일부터 8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연결통로에서 'K2'와 '아이디' 등 'K2 그룹전'을 열고 인기 상품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K2는 바람막이와 트레킹화 등을 준비했다. K2 여성용 바람막이 플라이슈트가 대표적이다. 플라이슈트는 가볍고 통기성이 우수해 초여름까지 착용 가능하다. 광주신세계는 K2그룹전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여성용 플라이슈트를 정사가 17만9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할인 판매한다.

남성용 재킷도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한다. 가볍고 신축성이 우수해 초여름까지 착용 가능한 남성용 여름 경량 스트레치 재킷은 정사가 18만9000원에서 60% 할인된 7만6000원에 구입 가능하다.

산행 시 뛰어난 착화감과 제동효과를

선사하는 고어텍스 트레킹화 글레이서는 정사가 28만9000원에서 10만4400원으로 할인 판매된다.

이번 행사에는 아이디의 상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아이디 남성 기본 폴로 티셔츠는 신축성이 우수하고 통기성이 좋아 활용도가 높다. 블랙과 네이비, 다크 그레이와 쿨 그레이, 라이트 베이지 5가지 컬러가 있으며 정사가(7만5000원) 대비 50% 할인된 3만7600원에 판매된다.

뛰어난 접지력으로 인기가 높은 아이디 룯지 트레킹화는 정사가(22만9000원)에서 대폭 할인된 11만9000원에 판매된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K2 그룹전은 바람막이와 트레킹화를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며 "올 여름 무더위를 미리 준비하려는 고객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는 3일부터 8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연결통로에서 K2그룹전을 열고 SS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 '자율주행·헬스케어' AI 기업들 광주에 등지

광주시, 이에이트 등 11개사 유치  
인프라·네트워크 활용 기술 검증

광주광역시와 자율주행·헬스케어·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잇따라 유치, 광주의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을 활용한 실증과 사업화 촉진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스트에이드, 이에이트㈜, ㈜에스더블유엠, ㈜78리서치랩, 데브디㈜, 리바이브웨어스튜디오, ㈜씨니마인드, ㈜엠피웨어, ㈜이제이엠컴퍼니, ㈜이지에이아이, ㈜잇더컴퍼니 등 AI 분야 유망기업 11개사와 추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증 테스트를 통해 기술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동반성장(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인공

지능 산업의 생태계를 한층 견고하게 다진다는 구상이다.

기업 대표들은 "광주의 인공지능 기반 시설(인프라)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광주가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AI) 기업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창업 초기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해 지역 인공지능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강 시장은 "광주는 AI 기업들이 기술을 실현하고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도시"라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선택'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이 기자

오늘·23일·30일 3차례 교육 실시  
전문가 초빙 인사·세무·회계 분야

광주상공회의소가 이달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노동법률 대응 등 다양한 실무강좌를 연다.

3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4일과 23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6월 실무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부가세 신고 절차 및 핵심 내용에 대한 강의 뿐만 아니라, 최근 변화하는 노동법률 대응, 주요 지출증빙 관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인사·세무·회계 부서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일 실시되는 교육과정은 세무·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실무 강의'다. 이 강의는 △2025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주요내용 △과세표준과 세액(과세표준 안분계산, 매입세액불공제 등) △신고 시 유의사항 등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각 과정별로 세분화해 진행된다. 강사는 진성회계법인 이사 김우택 회계사를 초빙했으며, 4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23일 개최하는 인사·노무강좌는 코리아노무법인의 조현실 책임노무사를 초빙해 △노동법의 기본사항 △임금

계산과 관리방법 △산업재해 발생시 관리방안 등을 중심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30일에는 지출증빙 실무를 주제로 하는 강의가 마련된다. 금융기관 VIP전담 상속·중여 절세전략 전문가인 오종원 회계사가 △일반경비 지출시 증빙 관리 방안 △원천징수 사례 해설 등의 주제로 4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한편 교육 시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되며,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를 참고 또는, 회원사업본부(062-350-5883)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 이마트, 5~8일 '고래잇 페스타' 개최

식품·생필품 최대 50% 할인

이마트는 오는 5~8일 대규모 할인 행사인 '고래잇 페스타'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인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수입산 삼겹살·목심, 미국산 체리, 강원 찰토마토, 활전복, 손질 민물장어, 동해안 생오징어, 대형 참돔 등을 최

대 50% 할인 판매한다.

70여개 가공식품과 80여개 생활필수품은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삼성·LG전자의 냉장고, 에어컨, TV 등 대형가전은 할인가에 최대 135만원의 추가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권범 기자